

英國은 왜 OPEC에 협조하지 않는가

빛나간 OPEC의 기대

최근 1년간 英國의 에너지 정책만큼 극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적은 없었다. 작년 3월, 대차 英國 수상은 탄광 노동자의 1년여에 걸친 장기 파업을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굴복시켰다. 英國의 탄광노동조합은 1974년에 대차 수상과 같은 보수당의 히드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전투적이며 강력한 노동조합이다. 英國은 세계석유시장에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OPEC(石油輸出國機構)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3월 18일, 86년도 예산(86년 4월-87년 3월)을 발표하였다. 석유가격 하락때문에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減稅도 소폭이나마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英國의 86년도 경제전망은 ▲인플레이율이 작년 5.5%에서 금년말에는 3.5%로 낮아지고, ▲石油가격 하락으로 파운드貨가 하락하여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金利도 낮아져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의 진정으로 개인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86년의 실질경제 성장(3%로 예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海원유의 가격은 이미 작년 가을 절반값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하락하면 北海원유의 생산은 중단되고, 英國의 국제수지는 악화될 것이며, 稅收도 감소하여 영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빛나간 것 같다. 국제수지도 85년도 수준인 35억 파운드

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英國은 86년도 예산에서 北海 원유가격을 배럴당 15달러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北海 유전으로 부터의 수입은 1년전 예측보다 반감되어 약 60억파운드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코스트의 감소로 내수의 회복과 수출의 증가가 기대되며, 原油 가격의 하락은 전체적으로 英國경제에 잇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OPEC의 전략은 기대밖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英國정부는 석유 가격 회복을 위해 北海원유를 감산할 의향이 없으며, 더우기 OPEC와의 협조감산에 참여하는 등, OPEC에 가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대차 수상도 『석유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英國이 北海원유를 감산할 것이라는 예측은 OPEC만이 아닌 많은 석유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이었다.

1951년 여름, 당시의 이란 모사데크 정권에 앵글로 이라니언 석유회사를 접수당했던 英國이 25년만에 자국산 원유를 내세우고 국제석유시장에 재등장한 것이 1975년 11월 3일이다. 이날, 스코트랜드·에버딘 교외의 BP 北海개발 본부에서 엘리자베드 여왕이 송유 컨트롤 보드를 직접 눌렀다. 이순간, 과거 앵글로 이라니언 회사의 후신 BP가 5년전인 1970년에 발견한 北海 포티즈 유전의 原油가 해저 180km, 육상 200km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여 에딘버러의 BP 정유공장에 공급되었다.

당시의 노동당 윌슨 수상이 발언한 유명한 조크는 『1980년에는 英國에너지相이 OPEC 의장이 되어 있을지도

●北海원유의 생산은 중단되고 英國의 국제수지는
악화될 것이며, 稅收도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하여
英國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 같다●

모른다』는 것이었다. 작년은 英國의 석유 산업이 1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불과 5만 B/D에서 출발하여, 10년 사이에 276만 B/D까지 성장한 英國 北海유전에 대한 도전은 작년 12월 OPEC 제네바 정기총회에서 시장 점유율 방위 선언이었다.

下流部門의 모미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北海원유의 생산이 중단되든가, 감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北海원유 가격의 하락은 英國의 재정이나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어서 英國정부의 油價유지 노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OPEC가 北海원유에 도전했고, 많은 석유전문가들이 그 도전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데는 두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北海원유의 코스트이며, 다른 하나는 산유국경제에 대한 견해이다.

北海 원유의 코스트는 대부분이 배럴당 2~10달러 사이에서, 中東이 2달러이하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일부유전은 12~13달러, 20달러나 되는 것도 있다. 원유판매가격이 이 수준을 밑돌면 적자를 보게 된다. 현재 北海원유의 시황은 배럴당 1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트를 밑도는 것은 아니나 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사우디의 원유 코스트를 배럴당 2달러로 보면, 가격이 28달러이었을 경우 26달러 이익을 보는 것으로 모두 사우디정부의 수입이 된다. 原油가격이 15달러가 되면 이익은 13달러로 반감하고 정부수입도 반감할 것이다.

英國北海 원유의 생산자는 BP, 셸, 모빌, 세브론등의 메이저에서 필립스, 코노코, 아모코 등 독립계 석유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백여개의 민간기업이다.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그들의 원유 판매 수입도 감소될 것이다. 그

러나, 사우디의 원유와는 코스트 구조가 다르다. 코스트와 수입의 차액 대부분은 英國정부의 세금이다. 다음은 英國의 석유수입세(PRT)의 계산식이다.

$$\{수입 - (로알티 + 조업비 + 자본지출 + 석유공제)\} \times 75\%$$

즉, 이익의 75%가 정부에 세금으로 징수되며 나머지 순이익에 다시 52%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것을 합하면 한계세율이 88%내지 89.5%(1983년 이전의 유전)가 된다. 이 식에서 제공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코스트를 배럴당 10달러로 보면 원유 가격이 28달러인 경우는 이익이 18달러이지만, 그 약90%인 16.2달러가 정부 수입이 되며, 생산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약 10%인 1.8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원유 가격이 15달러일 경우에 이익은 5달러이며, 그 90%인 4.5달러가 정부 수입으로서 3분의 1로 감소하고, 생산자의 순이익도 50센트로 약 4분의 1로 줄어든다.

原油를 그대로 매각하면 생산자는 직접 수입감소에 영향 받을 것이다. 그러나 北海원유의 생산자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정제하여 제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다.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을 일관적으로 본 경우에 제품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생산자의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석유수입세의 계산 기준 가격이 저하하여 그만큼 세금이 감소하고 하류부문의 이익에 공헌하게 된다. 현재, 北海원유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으나, 英國의 휘발유 가격은 10%밖에 내리지 않았다. 86년도 예산에서 휘발유세를 갤론당 7.5펜스, 약 10% 인상하였다. 석유업계는 제품 가격을 대폭 내리면 세금이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최대한 제품값 하락을 억제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도 제품 가격이 10% 정도 하락한다면 일관 조업하는 석유회사로서의 원유는 마이너스 10%(원유생산에 대한 세의 감소분) 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품 생산에

●英國은 北海원유가 바닥이 나도 제조업이 있으며, 외화수지면에서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 原油수출이 중단되면 수출상품이 없는 OPEC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돌리는 물량이 많은 원유 생산자 일수록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적어진다. 이러한 점이 생산한 원유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OPEC의 단순 산유국과 하류부문을 지닌 北海원유 생산자의 기본적인 차이다.

유전은 생산을 제한하여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北海원유 생산자들은 『유전이 늙지 않도록 최대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단 폐쇄한 유전의 재개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리고 투자액을 조기 회수하여 차입금 변제를 신속히 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계산도 있다. 유전의 채산, 특히 유전 소유자가 개발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할인 현금수지 수익률(DCF : Discounted Cash Flow Rate of Return)이다. t년에 현금수입을 E_t , 자본지출을 포함한 모든 현금지출을 I_t 라고 하면, 할인현금 수지수익률 r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sum_{t=1}^n \frac{E_t - I_t}{(1+r)^t} = 0$$

이 식에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계산이 필요하지만, 장래 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해 현금수입이 적어진다면 수익률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산하여도 현금수입이 적어져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다.

北海의 수익률은 2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메이저가 주장한 적이 있다. 수익률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수입을 늘리는 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감산한 경우의 수익률, 투자자본의 회수, 속도, 유전의 수명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北海유전에는 세계에서 수백개 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한 회사가 1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BP의 포티즈 유전 뿐이다. 그밖의 油田은 여러회사의 조인트벤처이며, 여기에 또 다수의 금융기관이 국제적 협조 용자단을 편성하여 참가하고 있다. 감산이나 유전폐쇄에는 우

선 조인트 벤처 내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며, 자금회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예상되면 협조 용자단의 동의도 필요해진다.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OPEC 산유국의 국유유전은 산유시설의 상각이나 투자자본의 회수는 오퍼레이터의 부담이며, 산유국 측에 책임은 없기 때문에 감산의 의사결정도 비교적 하기 쉬운 것이다.

같은 原油 생산자라 하더라도 北海의 민간기업과 OPEC의 국영사업, 종합적 일관경영과 단순적 산유업과의 사이에는 원유 가격 하락의 영향, 감산의 의사결정등에 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이 OPEC과의 협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非OPEC에 있어서도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오만과 같이 OPEC 회원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영사업으로서 경영하고 있는 나라와 英國 北海와는 또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英國 北海유전 특유의 조건이 OPEC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英國이 지닌 강점

「北海원유가 바닥이 드러난다면 英國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것은 이번 油價폭락이 시작되기 전부터 英國의 연구과제이었다. 작년 10월, 英國 상원의 특별위원회가 石油가 고갈한 경우를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석유수입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에서 石油가 고갈한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石油收入이 대폭 감소하면 英國은 비명을 지를 것인가. 현재로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英國인다운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石油收入의 감소는 국제수지, 재정, 국민총생산등 많은 측면이 있다. 英國의 석유에 의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80년이며, 85년에는 80억파운드의 흑자를

보았다. 한편, 石油 이외의 제조업 무역수지는 석유에 의한 흑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82년부터 적자를 보였으며, 85년에는 약 100억파운드의 적자, 무역수지 전체로는 약 20파운드의 적자, 이것을 무역외의 흑자로 메꾸면 경상수지는 약 30억파운드의 흑자를 보았다.

제조업무역의 적자는 석유가격의 상승, 英國의 석유의존도 향상으로 파운드 貨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한 요인이다. 석유수출이 감소하면 두가지 방법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보전된다. 파운드의 하락에 의한 수출의 시간과 디플레에 의한 수입의 감소이다. 원유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작년 가을부터 6개월동안에 파운드 貨는 도이치 마르크(DM)에 대해 약 20% 하락하였다. 유럽은 英國의 수출시장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유럽뿐만 아니라 석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선진제국의 경제성장 가속과 세계무역 확대의 은혜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 평균을 100으로 한 통화지수로는 일본 円貨가 158로 최고이며, 美國 달러貨 125, 西獨 마르크貨 115로 각각 상승하였으나, 파운드 貨'만은 87로 하락하였다. 그만큼 파운드 貨는 선진국 통화중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원유값 하락과 최근의 1차산품 코스트의 하락이 英國 기업의 코스트를 하락시키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의 진정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개인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플레이의 진정은 유럽에서 비싼 英國의 노동코스트를 낮추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英國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파운드의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수입물가의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요인이 될 것이지만 그전에 경기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英國의 石油稅수입은 총세입의 7%정도이며, 국내총생산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세수입이 반감하여도 수출의 증가나 국내소비의 증대로 기업실적이 향상되고 법인세수입의 증가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北海원유생산의 20%를 차지하는 BP나 14%를 차지하는 셸 등 메이저는 제품가격의 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에 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며, 폭리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英國은 석유무역의 흑자로 80억파운드를 벌어들여 35억파운드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北海원유

수출이 제로가 되면 45억 파운드의 경상적자가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그때는 北海의 외국 석유회사의 본국 공급이 줄어들어 무역외수지가 10억파운드 호전된다. 그래도 35억 파운드의 적자가 남을 것이나,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1천30억파운드에 달하는 총 수출을 4%정도만 늘리면 된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를 수출로 돌리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英國은 非石油수출을 증가시켰다. 중장기적으로 보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제조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그 열쇠』라는 것이 상원특별위원회 의 결론이다. 대처 수상은 국영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제조업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도 유일한 국영자동차 양산 메이커 「BL」社의 양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英國에서는 언뜻 불행하게 보이는 원유가격 하락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여 그 잇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재생을 도모하며, 기업투자 의욕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진흥시키면서 국내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려는 기운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당면한 파운드 貨의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에서의 세심한 배려에 달려 있다.

英國은 石油가 바닥이 나도 제조업이 있으며, 무역외수지 면에서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原油수출이 중단되면 수출 상품이 없는 OPEC제국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우디는 최근 자국통화 리알을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평가절하를 하여도 原油를 대신할 수 있는 수출상품이 거의 없다. 계속 감소하는 해외자산을 아껴 까먹는 수단이 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인플레이를 유발시킬 것이다. 英國과 사우디와는 석유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사우디는 石油收入이 국민경제·복지 그 자체이며, 英國은 많은 산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무시하고 英國과 OPEC산유국을 똑같이 취급하여서는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英國이 OPEC과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과거 종주국으로서의 체면도 있을 것이며, 보수당수로서의 대처수상의 철학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철학과 더불어 英國의 北海원유는 생산자로서나 영국자신으로서도 OPEC 계국의 석유와는 전혀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旬刊 석유정책 4/5)